

# 자의식적 정서로서 부끄러움의 경험 증거와 심리적 기능 분석<sup>1)</sup>

김기범<sup>2)</sup>, 김양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서 부끄러움의 증거 및 부끄러움의 심리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했다. 정서의 새로운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자의식적 차원은 정서의 문화보편성에 관한 안면표정 재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대안적으로 부각된 평가(appraisal) 관련 이론과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정서의 대인관계적 특성, 즉 사회적 정서의 자의식성과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등 도덕적 평가 및 판단에 관여되는 자의식적 정서를 도덕적 정서라 하는데, 연구 1에서는 한국 문화에서 부끄러움이 경험되는 상황, 판단 증거 및 기능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2에서는 부끄러움의 증거에 따른 부끄러움의 정도, 이유, 행위자에 대한 평가 및 부끄러움의 심리적 기능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끄러움의 경험준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사회 규범을 위반했을 때와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규범위반에 따른 수치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와 관계악화라는 부정 기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부끄러움의 증거 상황을 사회 규범적 차원과 개인의 자율성 차원으로 조작하여 상황에 따른 부끄러움의 정도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동체 윤리를 위반했을 때 자율의 윤리보다 부끄러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타인들의 행위자에 대한 비난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경험되었다.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행동을 억제하는 심리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자의식적 정서, 부끄러움, 도덕적 정서, 공동체 윤리, 자율의 윤리

우리가 정서라고 부르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접근은 일상적 언어에 근거해야 한다.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나 개념은 그 말이나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그리고 그 심리적 기능을 포함한 의미가 구체화될 때 명확해진다. 정서 또한 그것이 활성화되거나 표현되는 상황 및 그 표현이나 상징의 의사소통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이 사회 구성원의 언어 및 표현 등의 신호체계를 포함한 공유된 경험-해석 및 의미체계 내에서 나타나게 된다. 어떤 문화권에 있는 정서 언어는 다른 문화권에 없는데, 설령 어떤 정서에 대한 언어가 있다하더라도 그 문화권내에서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김기범, 김양하, 2003a, 2003b; Adolphs, 2000; Greenwood, 1999; Kim & Kim, 2004; Kitayama & Markus, 1994; Oatley, 1993; Russell, 1983; Wierzbicka, 1994). 그러므로, 문화는 정서 경험의 틀(mold and frame)을 제공하는 기능(조공호, 2003; 최상진, 2000; Hong, Morris, Chiu, & Martinez, 2000; Miller, 1999; Zajonc, 1998)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서 연구에서 중

1) 이 논문은 2003년도 중앙대학교 신진우수연구자 지원사업에 의한 것임.

2) 본 논문은 제 1 저자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을 때 작성한 것임.

Email: 66purple@hitel.net

요한 것은 정서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는 중들의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복잡한)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신호로서의 역할을 갖는 것이 인간 정서의 사회적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리학 분야에서 정서에 대한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좀더 복잡한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과 측정가능한 대상에 국한되었는데, 정서의 안면표정이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해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안면 표정이 안면 근육의 조합 원리에 의해 제한된 기본적 정서의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 정서들은 생리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정서들이 정말로 다른 정서들의 미소 분자(atoms of affect)인지, 그리고 정서의 연구 대상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정운, 2001; Ekman, 1994; Izard, 1990, 1994; Russell, 1994 등을 참고하기 바람.)<sup>3)</sup>

지금 현재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서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정서의 자의식성(self-conscious) 차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본 정서이론의 쇠퇴를 들 수 있는데, 안면 표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연기자가 포즈를 취한 안면 표정 재인의 문화간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서경험에 있어서의 평가와 기능주의적 관점의 (재)등장이다. 정서의 평가 이론은 Lazarus와 Lazarus(1994)에 의해 주창되었는데, 그들은 정서가 인지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인지적 평가는 보편적인 측면과 문화특수적인 측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또한 Wierzbicka, 1994). Lazarus(1991)는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의 목표, 신념들과 관련된 평가를 하고 그 결과 정서 체험과 대처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Lazarus의 정서이론은 평가과정과 자기 및 세계관에 대한 신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지적이며, 사건에 대한 평가가 목표관련성(goal relevance), 목표 합치성(goal congruence) 등의 측면들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정서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목표를 촉진시키면 정적정서, 좌절시키면 부정적정서를 체험한다. 또한 자아 관여성이나 상황의 변화가능성의 평가도 정서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목표에 대한 좌절이 다른 사람 탓이라 평가하면 분노를 느끼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평가하게 되면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희망적 정서체험을 하게 하지만 부정적 평가는 슬픈 정서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서의 기능주의적 관점은 John Dewey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에 정서 연구에서 등한시 되어왔던 많은 정서들이 형태학적으로 매우 다른 행동을 보이지만 그 기능적 등가성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는 행동을 감추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단절하거나 혹은 말의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킴으로써 그 경험이 명확해지는데,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행위양식(행동 감추기-말 빨리 하기)은 같은 기능적 결과를 함유한다(Campos, 1995). 이러한 정서 연구의 세 가지 흐름이 1980년대 이후 활성화되어 이른바 ‘복잡한 정서(complex emotion)’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 정서경험의 자의식적 차원

복잡한 정서 중 부끄러움, 죄책감, 자괴심, 당황스러움 등과 같은 정서를 자의식적 정서라 하는데, 이러한 정서들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을 (에

3) 이러한 몇 가지의 기본적(안면을 통해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정서라는 의미로)인 정서의 조합들로 기본적인지 않은 정서들(이차적 정서)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을 ‘palette theories’ 라고 할 수 있다.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경험되고, 자기 자신이나 행동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 자기 준거적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의식적 정서로 분류되며, 도덕적 위반 행위나 제지하고 도덕적 행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덕적 정서로 분류되기도 한다(Tangney, 1995). 따라서 이러한 입장의 정서 연구자들은 모든 정서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arrett, 1995; Eisenberg, 2000; Fisher & Tangney, 1995)<sup>4</sup>).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누군가가(자신이나 타인) 행위자의 행동이나 특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같은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자의식적 정서<sup>5</sup>는 자기의 도덕적 준거나 이상이 부모나, 선생님 등과 같은 사람들에 의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함에 따라 나타나고, 이러한 정서들은 대인관계 맥락에서 경험되어진다.

김기범, 김시업과 김양하(2002), 김시업과 김기범(2003)은 도덕적 정서로서 부끄러움의 정서 경험을 분석하면서, 부끄러움 경험의 준거는 사회적 준거(예를 들면, 타인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는 절도 등의 범규범 위반시, 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등의 대인관계 규범 위반시)와 개인적 준거(술 먹은 후 행동 등과 같은 자기통제불능)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규범 등의 사회적 준거를 따르지 못했거나 어겼을 때 부끄러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부끄러움은 자신 및 타인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또한 부끄러움을 경험하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타인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나 혹은 긍정적인 평가(예를 들면, 신뢰회복)를 받고자 동기화된다. 따라서 그러한 부끄러운 행위를 억제하거나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기능이 작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면 자기(global self<sup>6</sup>)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거나,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움츠리게 된다(김기범 등, 2002; 김시업, 김기범, 2003; 김기범, 김양하, 2003; Barrett, 1995; Eisenberg, 2000; Tangley, 1995).

Barrett(1995)는 부끄러움의 행동적, 사회적, 개인적 기능을 분석하였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끄러움은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거나 노출을 피하려는 행동 조절 기능과 대인관계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낮추어 의사소통하는 사회조절기능,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여 표준이나 준거를 강화시키는 자기조절 기능이 있다. 물론 부끄러움은 심박률이 낮아지고 일반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생리적 반응을 수반한다.

Barrett의 이러한 부끄러움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관점을 김시업 등(2003)의 연구결과와 대비시켜보면, 부끄러움을 경험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볼 것’이라는 불안감에 마음이 편치 않거나 혹은 염치가 없거나 양심이 허용치 않는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4) *Shame and guilt derive from a sense that our behavior or some aspects of ourselves is at odds with our moral standards or ideals. Thus, shame and guilt are each highly self-relevant emotions* (Tangney, 1995, p. 114).

5) 도덕성에 관련된 정서는 각 개인의 자기에 대한 평가와 이해에 근본적이기 때문에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라 불린다(Eisenberg, 2000).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보고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혹은 분노를 느낀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위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정서에서 자기에 대한 귀인은 자기에 대한 ‘global’ 혹은 ‘specific’과 관련이 있는데, ‘global’ 한 귀인은 자기 전체(total self)에 초점을 맞춘 개인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는 자신의 위반행위를 자기에 귀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나쁘게 평가하게 된다(“내가 그런 것을 하다니....”). 반면에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행위 그 자체만을 좋게 혹은 나쁘게 평가한다(“내가 그런 (나쁜)것을 하다니....”)(Lewis, 1993, p. 568).

이는 서구 문화권에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상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조절 기능 측면에서 방어적이면서 손상된 자기 평가에 대한 복구 내지 관계 개선적 욕구를 동기화한다.

표 1. 부끄러움의 심리적 기능 분석

	기능	행동조절기능	사회조절기능	개인 내적 조절기능	자기 평가
Shame	미국 (Barrett, 1995)	<i>shrinking</i>	<i>communicate self as small</i>	<i>highlight standards</i>	<i>global self</i>
	한국 (김시업등, 1993)	절제(조절) 회피	대인관계 (개선, 유지)	반성 및 내적 준거 강화	염치

### 부끄러움의 경험 준거 차원: 공동체 윤리, 자율성과 사회관습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무엇이 있는가? 즉 부끄러움의 경험 준거는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끄러움의 준거는 사회적 준거와 개인적 준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준거는 도덕적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판단의 준거는 다양하게 나타나나 부끄러운 행위를 그 행위자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됨됨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되면 ‘염치없는 사람’, ‘양심없는 사람’ 등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게 된다(김시업 등, 2003; 한규석, 최송현, 정옥, 배재창, 2004).

부끄러움의 경험은, 따라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예를 들면, 법규범), 지키도록 요구되는 것(예를 들어, 대인관계 윤리규범),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예를 들어, 개인의 선택이나 자율)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법규범 또한 변하고, 사회적 관습 등도 사회가 변함에 따라 없어지거나 새로운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끄러움의 경험적 준거는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Shweder(1991; Shweder & Haidt, 1993), Haidt, Koller와 Dias(1993)는 문화와 관련하여 공동체 윤리(ethic of community), 자율의 윤리(ethic of autonomy)와 신성의 윤리(ethic of divinity)로 구분하였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도덕적 발달단계에서 사회관습보다는 개인의 자율을 최고 도덕으로 보았으나, 문화권마다 우선시 되는 도덕성이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집합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권일수록 의무, 책임 및 역할 등과 같은 공동체 윤리가 강조되고, 개인주의 문화권일수록 권리나 정의, 자유와 같은 자율의 윤리가 강조된다. 물론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도 조직이나 집단 등에서의 공동체 윤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Turiel(1983b)은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 도덕성의 영역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Kohlberg가 지적한 것처럼 도덕적 발달 단계에서 도덕과 관습이 분리되어 도덕이 관습보다 우선한다는 관점과는 달리, 두 가지의 개념이 사회적 지식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다. 도덕적 영역은 정의, 권리, 행복에 관한 관행에 의한 판단으로 사람들이 상호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고, 사회관습적 영역은 사회의 상호작용을 조절해 주고 특정 사회체제에 관련된 행동상의 통일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아동들의 경우, 도덕적 규칙이 사회관습적 규칙보다 더 위반해서는 안되고, 더 일반성을 가

지며, 규칙이나 권위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판단하고,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보다 더 나쁘고 처벌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도덕성과 사회관습이 매우 복잡한 관계에 있으며, 이들을 다른 영역의 별개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받았다(Rest, 1983). 여기에서 Turiel의 도덕적 영역은 Shweder의 자율의 윤리와, 사회관습적 영역은 공동체 윤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한국 문화에서는 도덕 교과서<sup>7)</sup>에 관습과 도덕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도덕, 법, 예절 모두 관습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과 예절 외에 개인의 양심에 따르는 삶의 규범은 대부분 도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관습이 법이나 도덕보다 우선시되거나 도덕이 관습보다 상위의 발달단계라는 Kohlberg(1981)의 도덕 추론에 관한 인지-발달적 혹은 인지-구조주의 접근과는 다른 듯하다.<sup>8)</sup> 따라서 그 사회에서 어떠한 문화적 가치가 중요시되는지에 따라 도덕적 판단의 준거가 달라지게 된다.

각 문화에서 관습화된 규범이 개인의 자유나 자율 등과 상충할 때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인 규범이고, 어느 것을 위반했을 때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가는 문화에 따라 혹은 문화 내에서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습과 도덕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적 측면이 내포될 수 있는데,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은 개인의 선호나 성향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도덕적 규칙(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당위나 의무는 없는 관습적 규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박영신, 2001; Turiel, 1983b). 또한 관습은 공동체 윤리일 가능성이 있지만, 도덕은 공동체 윤리와 개인의 자율의 윤리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혹은 인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서적 경험과 관련하여 정서경험의 다양한 요소 중 문화간 혹은 문화내 차이의 대부분은 그 문화의 도덕적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율성 윤리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 및 선호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고, 공동체 윤리는 학교 교육이나 자녀교육과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제도 속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습득되거나 내재화된다. Turiel(1983b)도 도덕성과 사회관습의 영역이론을 영역배합에 따라 다차원적인 측면과 영역 혼합 상황 등으로 분류하기도 했다.<sup>9)</sup> 사회 관습적인 규칙은 변할 수도 있고,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타인들과 자기 자신의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만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닐 때 혹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영역 혼합의 경우 한 개인의 판단은 도덕적인 측면과 사회 관습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개인의 신념이나 성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

7) 본 연구자들은 일련의 연구과정에서 중, 고등학교 도덕교과서를 분석했는데 교과서 상에서 도덕은 꼭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나쁜 일이 되는 것으로, 도덕적 행동은 양심에 의해서 저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습은 어떤 민족이나 사회의 일상적인 풍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민족이나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풍습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전체 생활 습관을 뜻하고 있다(미완성 논문).

8) Kohlberg는 도덕성을 인지적인 방법(cognitive method), 즉 이해 갈등관계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을 조정하는(coordinating) 논리(logic)로 규정하였고, 도덕적 추론은 예측가능한 개체발생적 발달 형태를 따르며, 이러한 형태를 잘 알려진 단계이론으로 제안하였다. Kohlberg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 발달의 이러한 개체발생적 형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그러한 도덕적 추론은 세상을 보는 관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었다.

9) 또한 Turiel은 이차적 판단영역(second-order phenomenon)을 들면서, 본래는 관습적인 상황으로 여겨졌던 문제들이 2차적으로 도덕적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습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시하는 집합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혼합영역의 판단에서 도덕적인 측면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영역이 혹은 준거가 우선적이고 위반시 더 엄한 처벌을 받으며 강제성을 띠고 일반성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끄러움의 경험 사례 및 판단의 이유와 부끄러움의 사회-심리적 기능을 알아보고,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준거를 공동체 윤리, 개인의 자율성 윤리와 두 윤리가 혼합된 것으로 구분하여 각 준거 따른 부끄러움의 정도와 그 이유 및 자기 평가, 타인의 평가, 비난 및 책임의 귀인, 그리고 부끄러움의 행동억제 기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그러한 경험 및 판단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개인차 변인으로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을 측정하여, 개인적 특성이 상황을 해석하는데 그리고 판단하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가설 1. 공동체 윤리 위반이 자율의 윤리 위반보다 더 부끄러울 것이다.

연구가설 2. 공동체 윤리 위반이 자율의 윤리 위반보다 비난과 책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자기 및 타인의 평가에서 더 부정적일 것이다.

연구가설 3. 공동체 윤리 위반이 자율의 윤리 위반보다 행동제지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4. 공동체 윤리와 자율의 윤리 혼합 상황에서의 부끄러움의 정도는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연구 1

연구 1에서는 2002년 10월에 실시했던 도덕적 정서로서의 부끄러움에 관한 질적 자료를 재분석하고, 자료를 새롭게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부끄러움 경험 준거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끄럽게 생각되는 사건이나 행동의 종류와 이유 및 부끄러움 경험에 따른 사회-심리적 기능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 방 법

**조사대상자.**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147명(남 97명, 여 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3세(남 24세, 여 22세)였다. 자료 수집은 2002년 10월과 2004년 6월에 이루어졌다.

**도구 및 절차.** 응답자들에게 일상의 경험속에서 응답자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사건) 중에 부끄럽게 여길만한 일들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그러한 일들이 부끄럽게 생각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한 이유(justification)를 물어봄으로써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부끄러움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심리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았다.

**내용분석.** 내용분석은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세 명의 연구 조원들이 1차 적으로 내용을 유목화하여 분류한 후, 토론을 거쳐 반응 내용들에 대한 유목범주의 타당성을 논하

였고, 세 명이 분석자 간의 일치도는 71%였다. 분석자간 일치도는 전체 문항수 분에 일치된 문항수에 대한 비율로 계산되었다.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자간 신뢰도는 .86이었고, 최종적인 유목화 범주에 대한 분석자간 신뢰도는 .92이었다.

### 결과 및 논의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로는 크게 일곱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반응 범주는 타인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절도, 차비 안내기, 물건 파손 등이었다(전체 응답 148 중 62, 41.89%). 두 번째로 사회규범을 위반했을 때(26/148)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질서를 안지켰거나, 시험불 때 컨닝을 했거나, 성적 등을 조작했을 때이다. 세 번째 범주는 자기통제를 못한 행동 (20/148)으로, 구체적으로 술먹은 후 실수, 거짓말, 흡연이나 음란물 등이다. 네 번째는 타인에게 잘못했을 때인데, 친구한테 잘못했을 때, 약자를 괴롭혔을 때, 책임회피를 했을 때 등이다.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로 결례를 했거나 대중 교통에서 자리양보를 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 응답 내용 및 빈도

응답 내용 및 범주	빈도 (%)
1. 타인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일	<b>62(41.89)</b>
1) 절도	49(33.11)
타인(친구)의 물건을 훔친 것	
2) 모른척하고 그냥 갖기	6(4.05)
3) 차비 안낸 것	5(3.38)
4) 물건 파손	2(1.35)
2. 규범위반	<b>26(17.57)</b>
1) 질서 안지킨 것	15(10.14)
2) 컨닝	6(4.05)
3) 성적 조작	5(3.38)
3. 자기통제를 못한 행동	<b>20(13.51)</b>
1) 술먹은 후 행동	11(7.43)
2) 거짓말	5(3.38)
3) 흡연	2(1.35)
4) 음란	2(1.35)
4. 타인에게 잘못된 것	<b>18(12.16)</b>
1) 친구한테 잘못된 것	5(3.38)
2) 약자를 괴롭힌 것	8(5.41)
3) 책임전가, 회피	5(3.38)
5. 예의 없는 행동	<b>16(10.8)</b>
1) 결례	11(7.43)
2) 자리양보 하지 않음	5(3.38)
6. 공부 등한시	2(1.35)
7. 곤란한 상황	2(1.35)
8. 기타	2(1.35)
총 계	148(100%)

따라서, 응답 범주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범주는 도덕의 영역 중 공동체 윤리와 개인의

자율의 윤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네 번째 범주와 다섯 번째 범주는 관습의 영역으로 공동체 윤리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응답 빈도상에서는 도덕의 영역이 관습의 영역보다는 부끄러움을 경험하는데 더 높게 나타났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표 2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반응이 규칙위반과 수치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이든 관습이든 어떤 규칙의 위반에 대한 비허용성과 명시성, 그리고 처벌성에 따라 도덕관 관습의 판단 준거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규칙위반은 내용적으로 비허용성과 명시성이 높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치심, 자기 기만과 후회 등은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부끄러운 이유 응답 내용 및 빈도

응답 내용 및 범주	빈도 (%)
1. 규칙위반	<b>53(29.44)</b>
1) 사회적 규범에 위배	16(8.89)
2) 도둑질이기 때문에	15(8.33)
3) 지금껏 배운 것에 위배	14(7.78)
4) 도덕성 위배	8(4.44)
2. 수치	<b>52(28.89)</b>
1) 잘못이 공개되어서	26(14.44)
- 잘못이 결려서, 타인을 의식해서	2( 1.11)
3. 자기기만	<b>23(12.78)</b>
1) 내 가치관에 위배	9(5.00)
2) 비양심	9(5.00)
3) 이기적, 의도적	5(2.78)
4. 거짓말	<b>19(10.56)</b>
1) 거짓	8(4.44)
2) 남을 속였기 때문에	7(3.89)
3) 언행일치를 못해서	4(2.22)
5. 후회스러운 행동	19(10.56)
6. 무례	12(6.67)
- 부모님께 잘못해서, 웃어른께 무례	
7. 기타	2(1.11)
총 계	180(100%)

또한 부끄러운 이유는 이기적이거나 비양심적이라는 자괴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했거나 자신의 잘못이 타인에게 공개되어서, 타인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타인의식적 측면이 중요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부끄러운 행위로 인한 결과는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계 악화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적 평가의 경우 ‘나쁜 사람으로 본다’, ‘비도덕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이기적이라고 평가한다’ 등 행위(자)의 도덕성에 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끄러운 행위로 인해 상대방과의 신뢰가 떨어지고 실망과 소외의 부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끄러움의 사회조질 기능과 자기 평가적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시업, 김기범, 2003; Barrett, 1995).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동기화가 일어날 수 있다.



표 4. 부끄러운 행위로 인한 결과

응답 내용 및 범주	빈 도(%)
1. 부정적 평가	<b>65(48.50)</b>
1) 나쁜 사람으로 본다	32(23.88)
2) 비도덕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14(10.45)
3) 버릇없다고 평가한다	8( 5.97)
4)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8( 5.97)
5) 이기적이라고 평가한다	3( 2.24)
2. 관계악화	<b>47(35.07)</b>
1)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34(25.37)
2) 실망한다	8( 5.97)
3) 소외할 것이다	5( 3.73)
3. 상관없다	<b>22(16.42)</b>
1) 이해해줄 것이다	17(12.69)
2)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쓰지 않는다	5( 3.73)
총 계	134(100)

요약하면,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은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끄러움은 대인관계속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이나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도덕적 정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문화권에서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끄러움은 자기 지향적인 측면보다는 타인 지향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질적 자료 결과 분석을 토대로 부끄러움 경험의 준거를 다양하게 하여 이에 따른 귀인, 판단 및 심리적 기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부끄러움 준거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준거에 따른 그리고 영역에 따른 부끄러움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방 법

연구 1의 (재)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공동체 윤리와 개인 자율의 윤리 및 공동체 윤리와 개인의 윤리가 상충하는 상황으로 스크립트화하여 피험자들에게 읽고 반응하도록 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설계는 피험자간 방안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에 따른 정서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조사대상자:** 서울과 경기도 소재 종합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2세(남 23세, 여 22세)였고, 조사는 200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까지 실시되었다.

**도구 및 절차:** 응답자들에게 일상의 경험이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스크립트로 구성하

여, 이를 읽게 한 후, 각 반응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크립트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준거 상황 다섯 가지를 설정하여 구성하였는데, 범규범과 대인관계 윤리는 공동체 윤리 영역으로, 자기 조절, 개인 선호는 자율의 차원으로 설정하였고, 공동체 윤리와 자율의 충돌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범규범, 대인관계 윤리, 자기조절은 연구 1의 결과와 김시업, 김기범(2003)의 범규범, 부모와의 관계 윤리와 개인의 양심 위반에 대한 도덕적 판단 및 도덕적 정서로의 부끄러움에 대한 연구를 참고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건들을 선정하였고, 개인의 선호와 사회관습과 자율이 상충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한 때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던 동성애 문제와 월드컵 당시 태극기에 대한 찬, 반 논란의 문제를 도입하였다. 각 상황은 간단한 단문 형식과 단락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 공동체 윤리: 범규범과 대인윤리

1. K 씨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옆집에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
2. K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 어렵게 마련해 주신 등록금을 친구들과 유흥비로 모두 써버렸다.

#### 자율의 윤리: 자기 조절과 자유

3. K 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먹었다. 그런데 과음을 하여 친구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다짐을 하였다.
4. 동성애자인 K 군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 B가 집으로 놀러왔다. K 군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게 되었다.

#### 관습과 자율의 윤리 상충

5. TV 오락프로그램에서 요즘 젊은이들의 새로운 패션 경향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젊은이(K)가 태극기로 만든 옷들을 입고 리포터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피험자들은 한 가지 스크립트를 읽고 난 후 스크립트 상의 행위자에 대해 관찰자 시각에서 부끄러움의 정도와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및 평가(비난, 피해 및 책임 귀인, 자기 평가, 타인에 의한 평가, 행동 억제 등)를 Likert 5 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요구되었다. 또한 피험자들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문화적 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주의-집합주의(Kim & Kim, 1997)를 측정하는 항목들에 반응하도록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피험자간 방안을 사용하였는데, 각 상황별로 남, 녀 대학생 약 30명씩 스크립트를 읽고 반응하도록 하였다.

**연구설계 및 분석.** 본 연구는 5가지 스크립트 상황과 남, 녀 성차에 의한 5×2 요인방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차이검증을 주로 실시하였고, 개인차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자료는 대학원생 3인이 유사한 단어를 일차적으로 범주화하여 상호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2차 분석에서는 1차 때 의견일치되지 않은 범주화를 토론을 거쳐 재범주화를 시도하였으며, 3차 분석에서 최종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1차 분석시 3자간 일치도는 .65였고, 2차에는 .82, 최종적으로 .93의 일치율을 보였다.

## 결과 및 논의

부끄러움을 느낀 정도를 영역별로 차이검증을 해 본 결과, 공동체 윤리와 개인 자율의 윤리 및 개인의 자유와 사회관습의 상충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F(2, 254) = 55.20, p < .01$ ), 공동체 윤리 위반시 부끄러움 ( $M = 4.23$ )이 개인의 자율 (위반) ( $M = 3.69$ )보다 높게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자율 위반은 관습과 자유 상충상황 ( $M = 2.20$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각 상황별 부끄러움의 남, 녀 평균과 표준편차 및 사례수를 표 5에 제시하였는데, 세부적으로 각 상황별 부끄러움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F(4, 254) = 21.26, p < .01$ ), 어머니를 속이는 관계윤리 위반 상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음한 후 친구와 싸움을 한 자기조절 실패 상황, 쓰레기를 몰래 투기하는 범규범 위반 상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성애에 대한 판단과 태극기를 패션화하는 상황은 반응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 두 상황간의 차이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상황 2가 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 2와 3은 차이가 없는 것을 나타냈으며, 상황 1, 2와 3은 4, 5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상황별 부끄러움 평균

성별	유형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범규범위반	관계윤리위반	자기조절실패	개인선호	관습-자율
남 자		3.90(.77)	4.55(.83)	4.20(.96)	3.00(1.44)	2.15(1.27)
		$n = 30$	$n = 30$	$n = 28$	$n = 31$	$n = 31$
여 자		4.03(.61)	4.46(.69)	4.32(.70)	2.82(1.24)	2.25(1.07)
		$n = 31$	$n = 28$	$n = 31$	$n = 29$	$n = 31$
총		3.97(.69)	4.51(.76)	4.27(.82)	2.93(1.35)	2.20(1.16)
		$n = 61$	$n = 58$	$n = 59$	$n = 60$	$n = 62$

주) ( ) 안은 표준편차

그러나 자율의 윤리를 위반한 상황 3의 경우 부끄러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 상황 1, 2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준거 차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사회 구성원들간에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유된 판단 준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자율의 영역인 상황 4는 부끄러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성애의 문제가 타인의 피해나 행위의 일 반성에서 공동체 윤리나 자기 조절 실패보다는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공동체 윤리로서의 사회관습과 개인의 자유가 상충하는 상황은 부끄러움의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적 속성의 부재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10) 공동체 윤리 위반 상황의 사례수는 116, 자율 위반 상황의 사례수는 99, 관습과 자유 상충 상황의 사례수는 40이었으나 종속변인에 대한 오차 변량에 대한 영가설 검증은 각 집단별로 동등하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동등하지 않은 Type I error 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 및 판단 준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봄으로써 규범적 속성 및 제지의 속성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상황 1에서 3까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잘못된 행동이며 사회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가지 행위에 대한 정당화 과정에서 그러한 행동이 비도덕적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위반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한 ‘잘잘못’의 판단이 개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부끄러움의 이유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남 자	타인에게 피해	7	부모님의 희생	8	자제력 상실	11	사회적 통념위배	7	통념 위배	4
	잘못된 행동	7	질없는 행동	5	잘못된 행동	9	비정상	4	타인 시선	3
	사회규범위반	6	부모기대미흡	4	피해	3	기타	6	무응답	24
	기타	8	불효	3	기타	5	무응답	14		
		기타	10							
여 자	잘못된 행동	12	부모님의 희생	9	자기조절실패	16	사회통념위배	8	통념위배	4
	타인에게 피해	7	잘못된 행동	4	피해	5	타인의식	2	타인의식	2
	책임전가	4	부모기대미흡	4	잘못된 행동	3	기타	1	기타	1
	기타	8	생각없는 행동	2	기타	7	무응답	18	무응답	24
		기타	5							

그러나 상황 4와 5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행동이 사회적인 통념과 상치하고 있어 혹은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습 위배로 인한 타인의 평가 불안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주원인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또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행위의 평가 차원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각 상황에 대한 비난, 피해 및 책임에 대한 귀인 정도를 측정하여 영역과 상황별로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영역별로 공동체 윤리 위반에 대한 비난 정도( $M = 4.21$ )가 자율의 윤리( $M = 2.88$ )나 공동체와 자율의 상충( $M = 1.79$ ) 보다 높게 나타났다( $F(2, 299) = 116.54, p < .01$ ). 상황별로는 대인 윤리 상황( $M = 4.45$ )이, 피해의 경우 범규범( $M = 4.46$ )과 자기 조절 상황( $M = 4.34$ )이, 책임의 경우 범 규범 상황( $M = 4.56$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관계 윤리를 어겼을 때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범 규범을 위반했을 때와 자기 조절에 실패했을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피해의 책임은 범 규범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자에게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형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4, 300) = 2.68, p < .05$ ), 전반적으로 상황 1, 2, 3 유형(상황 2 > 상황 3)이 4, 5 유형(상황 4 = 5)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300) = 104.44, p < .01$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상황별로 남자 피험자와 여자 피험자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범규범 위반과 자기 조절 실패 행위에 대한 비난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개인 선호 상황에서 남정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일수록 개인의 자기 조절 실패와 개인 선호에서 남성과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4, 299) = 2.68, p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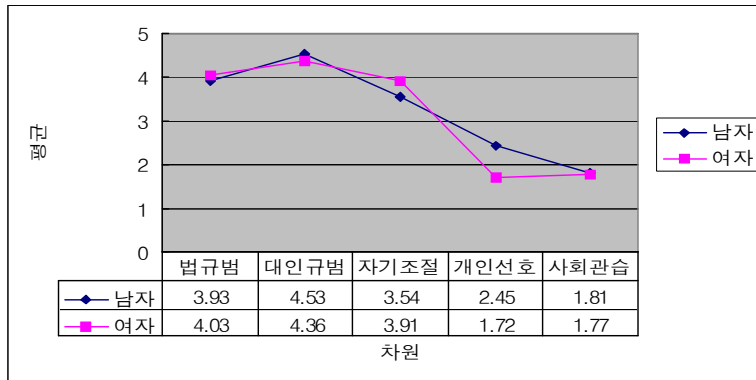


그림 1. 상황별, 성별 비난 측정치

타인에 대한 피해에서는 영역별로 공동체 윤리 위반에 의한 타인 피해 정도( $M = 3.96$ )가 자율의 윤리( $M = 3.24$ )나 공동체와 자율의 상충( $M = 3.19$ ) 보다 높게 나타났다( $F(2, 299) = 74.92, p < .01$ ). 상황별로는 법규범, 자기조절, 대인관계 윤리, 개인선호, 관습의 순으로 평가되었는데, 상황별 평균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4, 300) = 107.35, p < .01$ ). 사후 검증 결과 상황 1과 3은 차이가 없고 상황 2, 4, 5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상황 4는 5와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났다.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는 영역별로 공동체 윤리 위반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정도( $M = 4.31$ )가 자율의 윤리( $M = 3.47$ )나 공동체와 자율의 상충( $M = 2.76$ ) 보다 높게 나타났고( $F(2, 285) = 40.66, p < .01$ ), 상황별로는 법규범, 대인관계 윤리 = 자기조절, 개인선호, 관습의 순이었는데( $F(4, 300) = 35.55, p < .01$ ), 상황 1, 2, 3이 4, 5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립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행위자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상황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4, 299) = 51.91, p < .01$ ), 대인관계 윤리규범을 위반했을 때 자기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후검증 결과 상황 2가 1보다 높은 것으로, 상황 1, 2와 3이 4, 5보다 높은 것으로, 상황 4가 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공동체 윤리 위반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 $M = 4.34$ )가 자율의 윤리( $M = 3.76$ )나 공동체와 자율의 상충( $M = 2.77$ ) 보다 높게 나타났고( $F(2, 299) = 60.58,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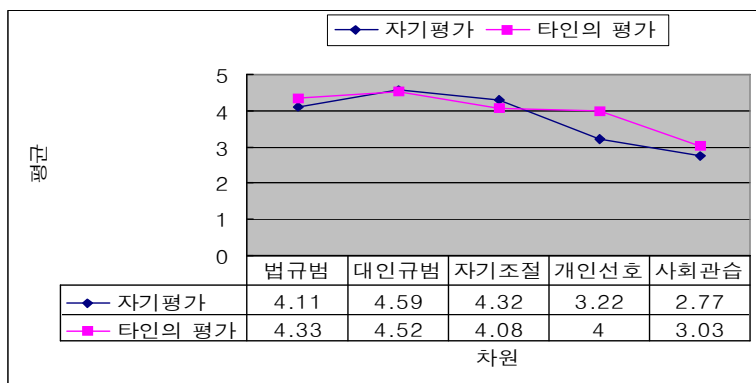


그림 2. 상황별 행위에 대한 자기-타인의 부정적 평가치

그러한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행위자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는 영역별로 공동체 윤리 위반으로 인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 $M = 4.42$ )가 자율의 윤리( $M = 4.04$ )나 공동체와 자율의 상충( $M = 3.03$ ) 보다 높게 나타나( $F(2, 299) = 68.13, p < .01$ ) 비난, 피해, 책임, 자기평가와 타인 평가 모두에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각 상황별로는 대인관계 윤리규범을 위반했을 때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 평가와는 달리, 범규범 위반 상황이 자기조절 실패 상황보다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후 검증 결과 상황 2가 상황 3보다 높게 나타났고, 상황 1, 2는 상황 4, 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상황 3은 5보다, 상황 4는 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자기 평가보다 타인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t = -3.86, p < .01$ ), 범규범( $t = -2.43, p < .05$ )이나 동성애( $t = -7.54, p < .01$ ), 태극기 패션화( $t = -2.51, p < .05$ )는 자기보다 타인들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반응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애의 문제는 부끄럽지도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통념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는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에 태극기 패션화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준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국기는 신성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인데, 한국 문화에서는 비록 그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조항이 있다할 지라도, 지난 월드컵 이후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통념이나 관습은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부끄러움의 행동억제기능**

부끄러움의 결과로서 행동억제의 기능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겠는가 라는 항목에 대한 반응은 상황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4, 299) = 37.18, p < .01$ ), 이 또한 대인관계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황 3, 1 순이었다(사후검증 결과, 상황 2, 3이 1보다, 상황 1, 2, 3이 4, 5보다, 상황 4가 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공동체 윤리 위반으로 인한 행동억제( $M = 4.57$ )가 자율의 윤리( $M = 4.16$ )나 공동체와 자율의 상충( $m = 2.98$ ) 보다 높게 나타나( $F(2, 299) = 116.54, p < .01$ ), 가설 3도 지지되었다. 여기에서 자율의 윤리도 비교적 높은 행동억제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자율 윤리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통념과 위반될 때 타인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7. 상황별 행동억제 평균

성별 유형	1	2	3	4	5
남 자	4.23(.94)	4.70(.60)	4.61(.92)	3.65(1.25)	2.94(1.41)
여 자	4.48(.81)	4.89(.31)	4.87(.43)	3.52(1.33)	3.03(1.28)
총	4.36(.88)	4.79(.49)	4.75(.71)	3.58(1.28)	2.98(1.34)

주) ( ) 안은 표준편차

지금까지 부끄러움 및 관련 변인들을 상황과 영역별로 차이를 분석해 보았는데, 어떠한 변인들이 부끄러움과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위에 대한 비난 정도, 책임, 피해, 자기 및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위에 대한 비난이 가장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타인에 대한 피해가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준거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량이나 상대적 중요성에서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6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 $t = 7.65, p < .01$ ).

부끄러움의 심리적 기능 중 하나인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부끄러움, 비난, 피해, 책임, 자기 및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부끄러움 및 타인 평가가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설명량은 53%이었다.

표 8. 부끄러움과 행동억제의 영향 요소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	$\beta$	R	R <sup>2</sup>	t
부끄러움	비난	.453	.462	.784	.614	7.65**
	자기평가	.424	.334	.821	.674	6.30**
	피해	.101	.115	.825	.681	2.21*
행동억제	자기평가	.488	.425	.728	.530	6.65**
	부끄러움	.302	.331	.767	.588	5.47**
	타인평가	.134	.100	.771	.595	1.97*

\*  $p < .05$ , \*\*  $p < .01$

따라서, 부끄러움의 경험은 타인의 비난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관여되어 이루어진다고 추측해 볼 수 있어 부끄러움은 자의식적 정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행동을 억제하는 심리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부끄러움과 개인차 변인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 변인으로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을 측정하여 부끄러움 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했는데, 개인주의 성향과 집합주의 성향을 상, 하위 30%로 구분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부끄러움에서는 상호작용이나 주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에 대한 책임 귀인에서는 공동체 윤리 위반 상황인 경우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귀인했고, 자율의 윤리인 경우 집합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일수록 행위자의 책임으로 귀인하였으며, 공동체 윤리와 자율의 윤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위자의 책임으로 귀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개인주의 집합주의 성향과 각 상황에서의 측정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끄러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지 않는 개인의 자유 상황인 동성애 상황과 사회관습과 개인의 자유가 상충하는 태극기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 상황에서 부끄러움과 수평적 개인주의와의 상관  $-0.41(p < .01)$ 인 것으로 나타났고, 태극기 상황에서는 자

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수평적 집합주의( $r = .29, p < .05$ )와 수직적 집합주의( $r = .33, p < .01$ )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보다는 개인의 자유나 자율에 의한 선택 내지 선호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합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국기를 일상복처럼 하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부끄러움의 준거를 공동체 윤리와 자율의 윤리 및 공동체 윤리와 자율의 윤리가 상충하는 상황으로 설정하여 부끄러움의 정도를 비교하려는 목적 하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자율의 윤리보다는 공동체 윤리 위반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지지되었으나, 개인차 변인으로서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이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성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체 윤리와 자율의 윤리가 상충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끄러움은 대인관계 윤리 등의 공동체 윤리를 위반했을 때 타인들의 행위자에 대한 비난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경험되고, 행동 억제라는 심리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자의식적 정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경험은 그 사회문화 속에서 구성원들에게 지키도록 요구되거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규범적 속성을 지닌 준거를 사회화 등을 통해 개인 내적으로 함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종합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심리학 분야에서 정서는 생물학적으로 장착된 보편적인 속성의 동기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생물학적 기원이나 기능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대인 관계 정서이자 도덕적 정서인 부끄러움의 경험적 준거와 기능을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과 타인 및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서의 자의식적 측면을 검증해 보고자 했으며, 부끄러움이 행동억제의 기능을 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했다.

한국 문화에서는 도덕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러한 도리는 유교적 전통에 의해 대인 관계 윤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러한 도리를 다 했을 때 사람으로서 평가받는다(최상진, 김기범, 1999; 한규석 등, 2004; Choi & Kim, 2003 참조). 이러한 인간관은 자기에 대한 정체감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세계관과도 관련된다(Dien, 1997; Jensen, 1997; Miller, 1997). 따라서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나 독립성보다는 집단의 가치와 대인관계 윤리가 강조되고 있고(조공호, 2003; 최상진, 2000; Kim & Kim, 1997; Triandis, 1989, 1995; Triandis & Suh, 2002),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 혹은 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의식성과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서 중 하나가 부끄러움인데, 지금까지의 부끄러움 연구는 주로 서구 문화권에서 이루어졌고,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 자기(global self)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부정적이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행동적,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김시업과 김기범(2003)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염치가 관여되고,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관찰되었을 때 더 부끄



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경험은 부정적 평가의 방지와 대인 관계 유지나 개선의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들어, 정서를 설명함에 있어 생리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 필요성(Kitayama & Markus, 1994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서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속에서 그 의미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김정운, 2001; 김기범, 김양하, 2003a; Adolphs, 2000; Wierzbicka, 1994). 부끄러움은 행위자의 자기 준거적인 반성적 평가와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의식되어 경험되어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행위 표준이나 대인관계 개선, 유지 및 행동억제의 심리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정서라 할 수 있다 (Barrett, 1995; Campos, 1995; Eisenberg, 2000; Lewis, 1993; Tangney, 199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끄러움의 경험 준거를 범규범과 대인관계 윤리의 공동체 윤리와 자기조절과 개인적 자유의 자율의 윤리 차원으로 구분하여 상황을 설정하여 스크립트를 구성한 후 이에 대한 부끄러움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부끄러움 경험과 관련된 자기 및 타인의 부정적 평가와 행동억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부끄러움이 공동체 윤리와 자율의 윤리 위반 중 어느 영역에서 더 많이 느껴지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두 윤리 영역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부끄러움의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며, 자의식적 정서로서 부끄러움의 심리적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심리적 기능은 무엇인지에 두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 윤리를 위반했을 때 부끄러움이나 비난, 타인에 대한 피해 및 책임, 자기 및 타인의 부정적 평가, 행동억제에서 자율의 윤리를 위반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자의식성은 타인에 의한 비난과 자기 스스로의 부정적 평가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끄러움의 경험 준거는 지금까지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Turiel은 사회관습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으로, Shweder는 공동체 윤리와 자율의 윤리, 그리고 신성의 윤리로 분류하고 있는데 Haidt, Koller와 Dias(1993)는 두 학자의 입장이 다른 것은 보는 관점이 달라서이지 공통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관습의 영역은 공동체 윤리와, 도덕의 영역은 자율의 윤리와 유사하나 서구 문화권에서는 도덕과 자율의 윤리를 강조하고, 신성의 윤리는 등한시켰으며, 공동체 윤리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제한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한 문화권 내에서 어느 영역이 더 도덕적이고 우선시된다는 관점은 피하고, 그 문화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습과 가치, 제도 및 규범에 따라 판단 및 추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자라온 환경이나 사회화 과정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단지 개인차 변인으로 개인주의 집합주의 성향을 측정하여 판단 및 추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범규범이나 대인관계 윤리 등과 같은 공동체 윤리가 자율의 윤리보다 부끄러움이나 비난 및 행동억제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한국 문화는 공동체 윤리가 자율의 윤리보다 중요시되고 우선시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관련된 심리학 분야에서의 연구들(예를 들면, 조공호, 2003; 최상진, 2000; 한규석, 2004, Kim & Kim, 1997; Triandis, 1995 등)과 관련지어볼 때 개인보다는 집단이, 자율보다는 관계가 한국 문화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본 연구 결과에서 공동체 윤리 위반이 자율의 윤리 위반보다 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정서는 사회적이며 대인관계적이라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자의

식적이고 도덕적인 정서로서의 부끄러움은 사회적 맥락에서 행위자의 위반 행위 및 행위자 자신(self)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비난이 수반되고 이는 반성적 사고로 나타나 자기 준거적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부끄러움의 관계 유지나 개선, 타인의 부정적 평가 회피와 행동 억제 등과 같은 기능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윤리로서 사회관습과 자율의 윤리로서 개인의 자유의 상충 상황을 설정하여 부끄러움의 정도 및 다른 영역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부끄러움은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난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 자신에 비해 타인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반응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마음속에 사회적 관습이 요구하는 것과 개인적 가치 판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끄러움을 덜 느끼고, 집합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역과 영역 혼합이 극히 단편적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추후 많은 딜레마 상황을 도입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부끄러움의 다양한 경험 상황을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하였는데,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수와 같은 다양한 준거 상황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각 영역별 차이에 대한 문화 비교적 연구를 수행해 문화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끄러움 경험에 관련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예를 들어, 자존감,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불안 등)의 도입이 요구되어진다.

## 참고문헌

- 김기범, 김양하(2003a). 문화와 정서: 대인정서의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395-396.
- 김기범, 김양하(2003b). 자의식적 정서로서의 부끄러움의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3-13.
- 김기범, 김시업, 김양하(2002). 대인관계 도덕성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 도덕적 self로서의 염치와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3-17.
- 김시업, 김기범(2003).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 도덕적 self로서의 염치와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87-101.
- 김양하, 김기범(2004).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부끄러워하는가?: 부끄러움의 도덕적 판단 및 기능분석. 한국여성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86-95.
- 김정운(2001). 관계적 정서와 문화적 정서: 정서의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89-407.
- 박영신(2001).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83-104.
- 조공호(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1999). 한국인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9-295
- 한규석, 최송현, 정옥, 배재창(2004). 한국사회에서의 사람 판단의 준거: 된 사람과 난 사람의

-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23-39.
- Adolphs, R. (2000). Emotions really are social.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Fall*, 472-478.
- Barrett, K. C. (1995). A functionalist approach to shame and guilt. In J. P. Tangney & K. W. Fis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pp. 25-63).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Campos, J. (1995). Foreword. In J. P. Tangney & K. W. Fis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pp. ix-xi).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Choi, S. C., & Kim, K. (2003). A conceptual exploration of the Korean self in comparison with the Western self. In K. S. Yang, K. K. Hwang, P. Pedersen, & I. Dia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pp. 29-42). Westport, CT: Praeger.
- Dien, S. S-f. (1997). Worldviews and morality: How do they intersect? *Human Development, 40*, 345-349.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697.
- Ekman, P. (1994). Strong evidence or universals in facial expressions: A reply to Russell's mistaken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15*(2), 268-287.
- Fisher, K. W., & Tangney, J. P. (1995). self-conscious emotions and the affect revolution: Framework and overview. In J. P. Tangney & K. W. Fis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pp. 3-22).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Greenwood, J. D. (1999). From Völkerpsychologie to cultural psychology: The once and future discipline? *Philosophical Psychology, 12*(4), 503-514.
- Haidt, J., Koller, S. H., & Dias, M. G. (1993). Affect, culture, and morality, or is it wrong to eat your do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613-628.
- Hong, Y-Y., Morris, M. W., Chiu, C-Y., Martinez, V. B. (2000).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7), 709-720.
- Izard, C. E. (1990). Facial expressions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3), 487-498.
- Izard, C. E. (1994). Innate and universal facial expressions: Evidence from developmental and cross-cultur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5*(2), 288-299.
- Jensen, L. A. (1997). Different worldviews, different morals: America's culture war divide. *Human Development, 40*, 325-344.
- Kim, K., & Kim, U. (1997).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ume 1* (pp. 247-259). Singapore: John Wiley & Sons.
- Kim, K., & Kim, Y. (2004). Culture and emotion: An analysis of psychological functions of shame as self-conscious emo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mily, School, and Organizations in Korea and Japan, Seoul, Feb., 20, Korea.*

- Kitayama, S., & Markus, H. R. (Eds.)(1994). *Emotion and cultu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 Lazarus, B. N. (1994). *Passion and reason: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M. (1993). Self-conscious emotions: Embarrassment, pride, shame and guilt. In M. Lewis & J. M. Havil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pp. 563-57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iller, J. G. (1997). Understanding the role of worldviews in morality. *Human Development, 40*, 350-354.
- Miller, J. G. (1999). Cultural psychology: Implications for basic psychological theory. *Psychological Science, 10*(2), 85-91.
- Oatley, K. (1993). Social constructions of emotion. In M. Lewis, & J. M. Havil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pp. 341-352).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ussell, J. A. (1983). Pancultural aspects of the human conceptual organization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6), 1281-1288.
- Russell, J. A. (1994). Is there universal recognition of emotion from facial expression?: A review of the cross-cultur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5*(1), 102-141.
- Shweder, R. A.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 Haidt, J. (1993). The future of psychology: Truth, intuition, and the pluralist way. *Psychological Science, 4*(6), 360-365.
- Tangney, J. P. (1995). Shame and guil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J. P. Tangney & K. W. Fis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pp. 114-139).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u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Suh, E. M. (2002). Cultural influences on personality. *Annual of Review of Psychology, 53*, 133-160.
- Turiel, E. (1983b). Domains and categories in social cognition. In W. Overto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pp. 53-89). Hillsdale, NJ: Erlbaum.
- Wierzbicka, A. (1994). Emotion, language, and cultural scripts.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pp. 133-19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Zajonc, R. B. (1998). Emotion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591-632). Boston, MA: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An Analysis of Shame Standard and Function as Self-Conscious Emotion in Korean Culture

Kibum Kim & Yangha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function and standard of shame experience in Korean culture. In psychological field of emotion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onism, the emotions are socially constructed, invariably connected with social interaction, and associated with appraisals regarding others, as well as the self. Many emotions are interpersonal. Emotions are states or processes that motivate social behaviors. Thus, interpersonal emotions have the intrapersonal, interpersonal, and behavior-regulatory functions served for the individual with a culture. These emotions associated with particular appraisals regarding self and other. These kinds of emotions are also called self-conscious emotions. The reason why some emotions such as guilt, shame and embarrassment are as labeled self-conscious is because the individuals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the self are fundamental to these emotion. In preliminary study, we investigated the situations of shame experience, reasons for shame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 of shame experiences in terms of qualitative approach by open format questionnaire. In the second study, we manipulated shame standard such as violation of law and interpersonal ethics, self-regulation failure, and conflict between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customs, which were categorized into ethic of community and autonomy, and measured degree of shame, blame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 self and other negative evaluation, and behavior inhibi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interpersonal ethics was more important standard for shame experience than any other situation. In addition, blame attribution and self-reflection (i.e., negative self-evalu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hame experience. Behavior inhibition was predicted by self-reflection and shame experience. However, subjects less experienced shame in conflict situation between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customs than social norm situation such as law and interpersonal ethics.

*Keywords:* self-conscious emotion, shame, moral emotion, community ethics, autonomy ethics